

926장면에 담아낸 중국 홍군의 대장정 예술적 가치를 살린 새로운 역사서



《대장정 - 세상을 뒤흔든 368일》(전2권)
웨이웨이 원작 | 왕쑤 글 | 선아오이 그림 |
송춘남 옮김 | 보리출판사 |
1권 558쪽 2권 544쪽 |
값 각권 35,000원

1934년 10월 15일부터 1935년 10월 20일까지 이어진 중국공산당 군대 홍군의 길고 긴 투쟁의 행군을 기록한 책 《대장정-세상을 뒤흔든 368일》은 ‘그림이야기’라는 독특한 형식의 역사서다.

장제스(蔣介石, 장개석)가 이끄는 90만 국민당 군대에 맞서 싸웠던 8만의 홍군은 지방 군벌들의 추격과 폭격, 추위와 배고픔,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하루 평균 26km씩 368일 동안 9,654km를 행군했다. 1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최종 종착지인 산시성에 이르렀을 때 홍군의 수는 7천 명으로 줄었고 대외적으로는 공산당의 패배로 알려졌지만 후대의 평가는 다르다.

‘장정’은 중국 공산당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이며 항일(抗日) 전쟁과 국공(國共) 내전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중국에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한 “놀라운 혁명역사”로 불린다.

방대한 사료 수집 해 그림 이야기로 묶어 보급

보리출판사 편집부가 《대장정》을 기획하게 된 것은 2002년 북경 도서전에서 대장정 100선 화첩을 만났을 때로 거슬러 간다. 기획을 담당할 유문숙 편집팀장은 “그림이야기가 주는 시각 예술적 가치와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대장정의 내재된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출간을 염두하고 편집부는 번역가 송춘남 씨를 통해 중국에서 출간된 대장정 그림이야기책이 100선 화첩뿐 아니라 5권짜리 보급판과 2권짜리 양장본이 있고, 그림이야기책의 모태인 원작소설 《지구의 붉은 띠》(地球的紅飄帶·The Red Ribbons of the Earth)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본격 진행에 앞서 출판사 내부적으로 ‘장정’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 출간된 그림이야기책을 모두 살펴보고 원작소설을 번역,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그림으로 구현된 《대장정》이 실록을 기록하듯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출간 작업은 2004년에 시작했다.

한국어판 출간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난제였다. ‘왜 하필 중국의 역사서’인가에 대한 물음은 책의 주 독자층 선정과도 관계가 깊은 문제였다. 원작 소설을 수차례 검토하면서 편집부 내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회의가 반복됐다.

“역사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사 전체를 살펴보는 것 뿐 아니라 ‘대장정’에서 교훈을 발견하듯이 역사를 미시적 관점으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린 대장정에서 처럼 삶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관 선택의 상황들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유문숙 편집실장은 책이 이웃나라의 역사서 이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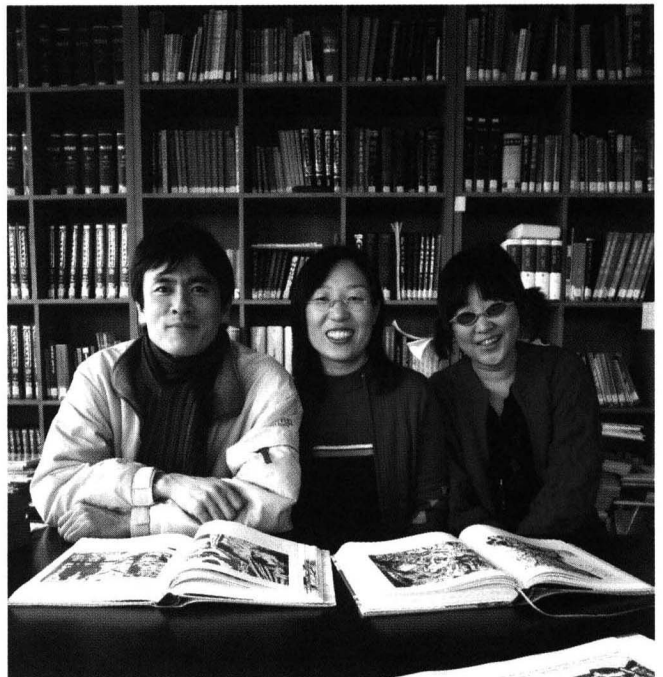
시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책 출간을 지지한 것은 오히려 편집자들이었다. 편집부 서혜영 씨는 '대장정에 참가한 젊은 홍군들의 엄격한 자기관리 과정에서 배울점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주 독자층을 홍군과 비슷한 또래인 18~30 대로 정한 이유를 전한다.

“‘혁명과 변혁’은 개인의 일상에서도 필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정’은 한마디로 홍군이 살길을 찾아 가는 도망이었지만 그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그 안에서 크게는 우리 근현대사의 투쟁 역사를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기성세대에게서 옳아온 역사적 의무가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현재 후세를 위해 또 현재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무와 고민을 해야 하고 책 속에서 그 필요성과 해결점을 성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역사에서 홍군의 '장정'에 부여하는 의미는 책에 들인 정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원작소설인 《지구의 붉은 띠》(地球的紅飄帶·The Red Ribbons of the Earth)는 웨이웨이(魏巍, 위외)가 쓴 47만자에 이르는 장편이다. 《대장정》은 원작소설을 작가 왕쑤(王素, 왕소)가 그림이야기책 각본으로 각색하고 여기에 화가 선야오이(沈堯伊, 심요이)가 그림을 그려 완성했다. 선야오이는 책의 그림 작업을 맡은 뒤 대장정 길을 두 번이나 답사, 관련 역사 자료를 거의 다 모아 6년 동안 대장정의 역사를 판화기법을 사용한 그림 926장면으로 살려 냈다. 중국에서 이 그림이야기책은 “혁명 역사를 표현한 그림이야기로는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9년 초판이 나온 후 '제7차 전국 미술 작품 전람회'에서 상을 받았고, 1991년 '중국공산당 창건 일흔 돌 기념 전국 미술 전람회'와 '전국 미술도서 평의'에서 금상, 제4차 전국 그림이야기책 평의에서는 그림 부문 1등상과 이야기 부문 2등상 등 굵직한 상을 수차례 수상한 바 있다.

새로운 형식의 역사서 출간 계기 희망

한국어판 출간에는 국내의 판매현실과 작업 과정을 고려해 판형, 가격과 같이 외형의 문제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소장자의 가치가 있으면서 읽기에 부담을 주지 않기로 어려운 문제였다. 두 권으로 된 한국어판 양장본 《대장정》은 젊은이들에게는 다소 버거운 분량이지만 그림이야기 장르의 정착과 자료 소장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출판사 의도의 결과이다. 인쇄 공정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판화를 사용한 그림의 결을 살리기 위해 종이 재질과 두께를 세 차례 이상 검토하고 인쇄 방식도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다. 번역에 따른 에피소드도 있다. 연번 출신인 번역자 송춘남 씨가 사용하는 어휘들은 순우리말이긴 하지만 현재 사라진 표현들이 많았다.



▲ 중국에서 출간된 대장정 보급판(5권, 양장본(2권))
▼ 《대장정》을 기획·편집한 보리출판사 편집 2실 이정우 씨, 유문숙 실장, 서혜영 씨

가능하면 깨끗하고 좋은 우리말을 살렸고 정서상 어색한 문장들은 유문을 거쳐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다시 고쳤다.

유문숙 실장은 “이 책을 청년들이 읽음으로 기성세대와의 의사소통 계기를 마련하고 그 꿈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믿기 힘들 정도의 장정을 마친 젊은 홍군들의 모습은 변혁을 꿈꿨던 세대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세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한다. 독자에게 뿐 아니라 책은 다양한 표현양식을 추구하는 출판인들에게도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유 팀장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공을 들여 자신의 역사를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그 작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대성, 체계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이나 개별 출판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장정》을 보며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정리 노력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또 출판 미술과 새로운 출판형식에 대해 출판인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